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7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시를 시작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2026년 시군 방문'에 나선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가 전주시청 강당에서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함께 올림픽 전주 유치기원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 '전북 경제계 거목' 이선홍 회장 별세

(합동건설)

경제계 리더로 지속가능 지역 경제 전략 주도

지역 경제계 애도 표명... "큰 자산으로 남을 것"



전북지역 경제계를 대표해 온 이선홍 회장(합동건설)이 7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이 회장은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장,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끈 인물로 평가받아 왔다.

오랜 기간 경제계 리더로 활동한 이 회장은 전북 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전략을 주도해 왔다. 특히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재임 시절인 2017년, 전북 상공인의 전당인 전주상공회의소 회관을 완공하며 주목을 받았다.

전주시의 화관은 첨단 친환경 설계를 함께 다수의 기업지원 기관이 입주한 공간으로, 자금 지원부터 경영 상담, 교육까지 한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기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업종과 규모를 불문하고 지역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 회장은 생전에 "지역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중심으로 한 혁신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며 상의화관 건립을 직접 진두지휘했다. 해당 건물은 상생 협력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허브로 자리매김하며 전북 경제계의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 경제계는 이 회장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이 회장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지역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헌신해 온 지도자였다"며 "그의 비전과 리더십은 앞으로도 전북 경제에 큰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고 추모했다.

남원 출신인 이 회장은 합동건설 회장을 비롯해 전주상공회의소 제22·23대 회장,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제23·24대 회장,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제33대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전북도상공회의소 협의회 회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도내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과 발전을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빈소는 전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9일이다. 장지는 전주승화원 이후 남원 산동면 선영이다. /오상근 기자

## '도전경성의 처음과 끝, 전주시민과'

김관영 도지사 2026년 시·군 방문 - 전주시

도민과의 대화 통해 전주 대도약 위한 비전 공유  
서원노인복지관 찾아 노인 대상 수업 직접 참관  
서부시장서 전주 자생단체장들과 장보기 행사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붉은 말의 해인 2026년 새해를 맞아 도내 14개 시·군 중 처음으로 전주시를 찾아 전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전주시는 7일 김관영 지사가 '도전경성(挑戰境城)'의 처음과 끝, 도민과 함께 슬로건으로 전북도정과 전주시정을 공유하기 위해 전주시를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전주시의회를 방문해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전주시민과 전주시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강당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도정 철학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2026년 사자

성어인 '여민유지(與民由之)'의 정신을 소개한 후, 도전경성의 초심을 도민과 함께 끝까지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김 지사는 또 특강을 통해 도정 철학과 전주시와 함께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을 공유했다.

특히 김 지사는 전북에서의 전주시의 의미를 되새기며, 전주의 대도약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또, 이를 위해 민생 현장에서 도민들의 소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도민과의 대화에 이어 사회복지시설인 서원노인복지관을 찾아 시설 관계자와 이용자들을 격려하고 주요 사업을 청취했으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직접 참관하기도 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전주 서부시장을 찾아 전주시 자생단체장들과 장보기 행사를 가진 후 만찬을 끝으로 공식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시군 방문에서 "전주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심도시로 전주시가 발전해야 전북이 더 큰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북과 전주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를 처음으로 방문해주신 김관영 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면서 "전주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전주시민을 위해 대도약의 길을 굳건히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장수·순창,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준비 '착착'

신청 접수 순항... 순창군 35% 신청, 장수군은 접수 시작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소득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장수군과 순창군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순창군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11개 읍·면에서 신청 접수를 시작해, 1월 6일 기준 전체 군민의 35%가 넘는 9,760명이 신청을 마쳤다. 장수군도 1월 7일부터 7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사업 대상은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거주지 읍·면 행정복

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서류 검토와 실거주 확인을 거쳐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이 확정되며, 군민 1인당 월 15만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첫 지급은 2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사용 기한이 90일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전북자치도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도와 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북형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역산업과 연계한 소비 선순환 구조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이만호 기자

## AI 기반 학교안전사고 예측 모델 개발 | 전북교육청, 새학기 개학 이전 학교에 보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신규사업으로 'AI 기반 학교안전사고 예측 모델'을 개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모델 개발은 체육활동 시간이나 점심시간, 쉬는 시간 등 일상적인 교육활동 중에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전북교육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학교안전사고 사례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사고는 5월과 11월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점심시간 전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7.5%가, 체육시간에 28%가 발생하는 등 시간대별·활동별 뚜렷한 패턴이 확인됐다.

사고 장소는 강당·체육관과 운동장이, 사고 병명은 골절과 염좌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월별·시간대별 사고 사례는 물론이고 학교급별·활동유형별·기상조건별 사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AI 기반 학교안전사고 예측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AI 예측 모델은 과거 사고를 단순히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 유형과 교육환경에 따라 사고 위험도를 예측해 '학교안전 예보' 형태로 학교에 제

공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북교육청은 강조했다.

이 모델은 안전교육 자료, 지도 문구, 체크리스트 등과 연계해 교사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됨으로써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반 학교안전사고 예측 모델은 다음 달 중 학교 현장에 보급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

# 역사문화도시 익산

왕궁리 5층석탑 사리장엄

1966년 7월 26일 국보 지정

미륵사지 사리장엄

2022년 12월 27일 국보 지정

미륵사지 석탑

1962년 12월 20일 국보 지정

왕궁리 오층석탑

1997년 01월 01일 국보 지정